

외교 참모진 교체 ‘속전속결’…개각도 속도낼 듯

조태용 이어 주미대사도 임명
‘총선 차출설’ 박진·권영세에
이종섭 국방 포함 개편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기점으로 외교 참모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단행하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연쇄 개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 사의 표명과 조태용 새 안보실장 임명,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개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직후 조태용 안보실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 실장은 오전부터 대통령실로 출근,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날 원래 잡혀 있던 안보실 업무보고도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개서된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접견에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1차관의 부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내정자는 ‘아그레망’ (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아그레망에는 통상 4주 정도 소요되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20여일 남은 만큼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최대한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조 실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내정된 지 2주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다.
주요국과의 양자관계 조율을 맡는 외교 1차관 자리가 비면서 당장 추가 인선이 필요해졌다.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면적인 내각 외교·안보 진용의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외교·안보 참모진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6~17일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을 통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작년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받은 군 수뇌부에 대한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월 말 국빈 방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 정상외교 이전에 개편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출몰하자, 의전·외교비서관에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까지 신속하게 교체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의식하면 인사를 할 수가 없다”며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외교와 국정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없어”
대통령실 언론 공지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알렸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식발식을 하고 있다.

교도는 해당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 “대통령실, 온갖 풍문 진원지 돼”

‘김성한 교체’ 파상공세
김건희 여사 배후설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채 안 남겨둔 상황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집중 공세를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실장이 그간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도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이상하다”며 “증폭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있을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밤새워 전락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가안보

실이 이처럼 허접한 곳 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장섭 의원은 회의에서 “권력 암투설 등 여러 의혹이 난무하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에 번지는 불안 기류가 대미 외교 참사를 예고하는 전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김 실장 사퇴)는 김태호 1차장과의 알력 다툼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라며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이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주미대사로 교체한 것이 말이 되느냐. (미국에 대한)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 배후설’을 언급,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을까. 그 배후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실의 성실하고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50억 클럽 의혹과 엮이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 터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식품

Dr. Chung's Food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겐공,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분 아연(Zn),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국산 겐공 함유

베지밀

항아리고 건강만 5060

시니어두유

Soymilk for Senior Citizens

두유액 93% 함유, 단백질 7% 이상, 190ml (20개입)

1주 무료!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amil.co.kr

● 서울-경기: 동북영양소 (03)5582-4507 ● 북부영양소 (03)9189-3782 ● 남부영양소 (03)2021-6535 ● 관서영양소 (03)2634-2315 ● 안성영양소 (03)2705-4349 ● 경원영양소 (03)3074-8801 ● 충청영양소 (042)823-8801 ● 전북영양소 (063)214-5731 ● 전남영양소 (062)241-5001 ● 경북영양소 (053)559-3441 ● 경남영양소 (053)231-6508 ● 광주영양소 (054)751-6331 ● 부산영양소 (051)204-6501